

韓 기업, 정상적 경영활동 전망... 정부 “美 협력 지속 추진”

우려대상국 5% 이하 확장 허용
산업부, 가드레일 규정 긴밀 협의
“기존 생산설비·기술협력 유지”

미국에서 반도체를 생산해 보조금을 받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우리 기업의 중국 내 반도체 생산설비 확장이 5%까지 허용된다.

미국 상무부는 22일(현지시간) 이같은 내용의 반도체과학법(CHIPS Act, 이하 반도체법) 가드레일 규정 최종안을 확정해 공개했다.

상무부는 앞서 올해 3월 초 미국 반도체법 상 보조금 등 투자 인센티브를 수령하는 기업의 중국 등 우려대상국(countries of concern) 내 설비확장이나 기술협력을 제한하는 가드레일 초안을 발표했다. 미국이 지정한 우려대상국은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이지만, 실질적으론 대부분의 반도체 기업이 진출한 중국이 타깃으로 미국 정부의 반도체 지원 혜택이 중국으로 흘러들어가는 걸 막겠다는 취지다.

이번에 발표된 최종안을 보면 우선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돈 그레이브스 미국 상무부 부장관과 면담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생산능력 확장과 관련해 보조금 수령시점부터 10년간 웨이퍼 기준 5% 이하 확장은 허용한다. 하지만, 이를 어길 경우 미국 정부는 해당 기업에 제공했던 인센티브 전액을 회수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일정 사양 이하의 레거시반도체(28nm 및 이전세대 반도체 등) 생산설비 중 기존 설비는 10% 미만까지 확장이 허용되며, 동 설비에서 생산된 반도체의 85%가 중국 내수용 최종 제품으로 활용될 경우 확장 규모의 제한은

없다. 또 5% 초과 확장시 기존 10만달러 기준 투자 금액 제한을 기업과의 협약을 통해 정하도록 해 사실상 제한 규정을 삭제했다.

가드레일은 또 미국 정부의 반도체 보조금을 받는 기업이 화웨이, YMTC 등 우려대상국 기관과 국가안보상 민감 기술·품목에 대한 공동연구·기술 라이선싱 등 기술협력을 금지했다. 다만, 국가표준이나 특히 관련 활동 등 국가안보 우려가 없는 활동은 예외가 적

용되고, 기존 진행중인 연구도 미국 상무부와 협의를 통해 진행이 가능하다.

이에 우리 정부는 안보적 우려가 없는 정상 경영활동은 보장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평가했다.

산업부는 “우리 정부는 2022년 8월 반도체법 발효 직후부터 가드레일 조항 세부 규정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미국과 긴밀한 협의를 진행해왔다”며 “그 결과, 당초 세부 규정 초안에서도 우리 기업이 중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생산

설비의 유지와 부분적 확장을 보장했고 기술 업그레이드도 지속 허용할 것으로 판단됐으며, 관련 내용은 최종안에도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초안과 비교해서도 업계의 일반적인 경영환경을 반영했고, 국가안보 우려가 없는 정상적 비즈니스 활동은 보장했다고 봤다. 그 근거로는 ▲ 생산능력 측정기준(웨이퍼 투입량)을 반도체 시장의 계절별 변동 등을 고려해 월 단위가 아닌 연 단위로 변경하고 ▲ 구축 중인 설비를 상무부 협의시 가드레일 제한의 예외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으며 ▲ 기업이 진행 중인 연구나 국제표준을 마련하기 위한 활동 등을 기술협력 제한 범위에서 제외한 점을 꼽았다.

산업부는 “업계는 이번 최종안 공고에 따라 기업별 글로벌 비즈니스 전략 등을 기반으로 반도체법상 인센티브 규모와 가드레일 조항을 고려해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라며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강화와 우리 기업의 투자·경영 활동 보장을 위해 미국 정부와 협력을 지속 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인도·태국 등 新생산기지 주목... 업계 “용인클러스터 착공부터”

>> 1면 ‘K반도체 최악 피했...’서 계속
인프라 관건... “해외투자 쉽지 않아”

14억명에 달하는 인구와 저렴한 인건비가 최대 장점이다.

이미 스마트폰 공장 등 산업 인프라가 갖춰져 있어 반도체 수요를 일부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도 기대된다.

베트남도 빈틈을 공략하고 있다. 팜

민진 총리가 최근 미국에서 엔비디아 등 반도체 업체를 만나 투자 유치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응우옌 쉰억 폭 전 총리도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에서 반도체 투자시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한 바 있다. 이미 베트남은 인텔 패키징을 비롯한 반도체 공장을 여럿 두고 있다.

그 밖에도 태국과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 국가가 중국을 대체할 새로운 생

산 기지로 주목을 받고 있다. 코트라에 따르면 지난해 태국 집적회로 시장 규모가 전년 대비 20% 이상 가파른 성장을 보이며 중국 대안 중 하나로 올라섰다.

문제는 이들 국가가 대규모 반도체 단지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것.

인도는 대표적인 물 부족 국가다. 반도체 공장을 운영하려면 세척 등 공정에 쓸 깨끗한 물을 필요로 한다. 강력한

지방 분권 체제로 정부와 일관된 소통 창구를 기대하기 어렵고, 카스트제도로 사회 분위기가 혼란스럽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전력난도 심각하다. 인도와 베트남 등 해외 공장들이 정전으로 여러번 가동을 멈춘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각국에서 인프라 확충을 약속하고 있지만, 지정학적 관계와 환경 등이 겹쳐있어 더 신뢰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무엇보다 국내 반도체 업계는 이미 국내에 대규모 공장을 준비하고 있다. 삼성전자가 평택 캠퍼스를 여전히

절반도 채우지 못했다. SK하이닉스도 청주에 새로운 공장 투자를 유예한 상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삼도 뜨지 못했다. 미국에도 거액을 투자해야 한다.

때문에 국내 반도체 업계에서는 해외 추가 투자에 다소 회의적인 분위기라고 전해졌다.

업계 관계자는 “반도체 공장은 막대한 비용이 드는데 지원을 약속받았다고 쉽게 투자를 결정하기 어렵다”며 “일단은 용인클러스터 착공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용 기자 juk@

JUNG KWAN JANG

올 추석, 진짜 힘이 되는 정관장을 선물하세요

추석맛이 사은행사
2023.09.05 ~ 10.01

- 1 전제품 10% 할인 * 일부 품목 제외
- 2 정관장 멤버스 한정 5~10% 추가할인 * 일부 품목 한정
- 3 홍삼정 X 마누카꿀 기획세트 한정판매 * 일반식품 30,000 set
- 4 신규가입 시, 활삼28 [2병] 증정 * 일반식품 / 단, 5만원 이상 구매시, SMS 수신동의 YES, 1인 1회 한정

정관장에서 마음을 전하는 다양한 방법

가드필드 필요 없는 매장 픽업 / 마음을 대신 전하는 정물 배송 / 소중한 분께겐 특별 포장